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탐색

마은희 한양여대 겸임교수

요약

본 연구는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A교회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80%이상 참여한 유아의 어머니 3명이다.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 모형에 기초한 9편의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유아가 성경이야기를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내면화 하도록 놀이와 활동으로 구성하여 2021년 3월 20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28주 동안 실행하였다. 자료는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 심층면담, SNS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는 ‘아이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 새 일상이 된 신앙 교육’, ‘예배의 대안이지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유아 제자훈련’,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한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을 경험하고 이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의 지원 가능성, 비대면 심방을 통한 목회 기능의 가능성, 소규모 교회에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실시간 화상회의, 유아 제자훈련, 성경이야기 그림책, 코로나 19, 사회정서 인성교육

I. 서론

유아기는 신앙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영적 발달과 전인 발달을 이루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정희정·김남임, 2013; 정희영·진명선, 2017). 기독교교육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딤후 3:15-17)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독교적 인성을 겸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제시한다(정희영 외, 2014). 제자를 삼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Rushdoony, 2007, p. 55).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어, 성경을 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언어로 가르친다면 유아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정희영, 2010, 204). 선행연구들은 유아에게 성경이야기를 오감놀이(이지영·이유나, 2016)와 극놀이(오영희·정미, 2009)로 제시하여 신앙발달과 기독교적 개념의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성경이야기 활동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정해·신인숙, 2011; 박수진·김미경, 2013; 송영란·오영희, 2006; 오영희·정미, 2009), 유아의 인성발달을 위한 적절한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김성원·신현정, 2018).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유아에게 성경이야기를 발달에 적합한 형태로 경험하게 한다면 유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도록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온 교회학교는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유아의 경우 부모는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꺼리거나(조혜정, 2020),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경우가 두드러져 주일 대면예배의 참여율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연령인 30-40대가 42.8%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89>). 최근 기사에 의하면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로 아이들이 없고(74%), 운영 여건의 부족(14%)을 들고 있으며, 전국 교회학교의 70%는 미취학 부서가 1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음이 보고된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582&code=231111111&sid1=hon/feed>). 19-39세의 청년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0년 뒤에 신앙은 유지하더라도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나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대면예배와 교회교육의 회복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이다(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젊은 세대와 유아의 신앙교육 단절이라는 다음세대의 신앙적 위기를 예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와 교회학교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어린 유아들은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된다. 더욱이 교회의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의 질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9>;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4>.) 이에 대한 대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기독교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의 아이디어는 유치원 원격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다. 유치원의 원격수업 초기에는 ‘집콕놀이’ 꾸러미를 전달하는 데 그쳤으나, 이후 영상콘텐츠 제작하고 놀이키트를 드라이브 스루로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더 나아가 부모가 유아와 함께 놀이하며 지원하도록 하였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유아의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단순한 가정연계가 아닌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이미정·신지연, 2020).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기독교 유아교육에 적용하면 부모가 예배 영상을 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아의 신앙적 배움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유아를 지원할 때 기독교 유아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강성국 외, 2020; Takeuchi, 2011). 즉 가정 내에서 예배와 기도, 교육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가정을 지원하여 신앙이 다음세대로 전수되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이광수·함영주, 2018).

교회가 가정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면교육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화상회의 플랫폼은 실시간 소통과 더불어 즉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동후, 2021). 코로나 시대의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탐구한 결과에서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교제(59%), 성경공부(45%), 예배(42%), 회의(29%), 기도회(26%)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화상회의 플랫폼은 컴퓨터가 없더라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해 고가의 방송장비

가 없이도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유아와 젊은 세대 부모의 교회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아와 가정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대안을 고려할 만하다.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택트(On-tact)’가 익숙한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현 시점에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은 가상의 공간을 통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Ebner and Press, 2020).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의 또 다른 역할은 물리적인 이동 없이 소통이 가능한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고, 참여자의 일상적인 공간에 가상공간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화상회의 플랫폼은 여러 개의 실제적 공간을 동시에 모아놓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소가 된다(이동후, 2021). 화상회의 플랫폼의 가상공간 뒤에는 개인이 속한 가정과 가족이 있는 점이 기독교 유아교육에서 유아뿐 아니라 부모와 가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유아에게 영상콘텐츠만을 제공하는 경우 유아 혼자 시청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지만,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제자훈련은 유아와 함께 있는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부모의 참여와 지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을 실행하고 이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환경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한 곳은 경기도 소재 중소도시의 소형교회이다. 코로나 19 이전 유아부 모임은 주일예배 이후 부모와 유아가 함께 성경이야기를 듣고 관련 활동을 하는 형태로 월 1회 이루어졌으나, 코로나 19 이후에 유아부 모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 훈련의 실행자는 담임목사 사모로 유아교육, 기독교교육,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였으며, 유치부 교육전도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의 현장 실무 경력이 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한 유아는 만 2세 여아 2명, 만 3세 여아 1명, 만 4세 남아 1명, 만 5세 남아 1명, 만 6세 여아 1명으로 총 6명이다. 이 중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80%이상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3명의 어머니로 유아의 이름은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로 가명을 사용하였다.

2.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 ‘빛이 되어라’¹⁾는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1)허계형 외 글, 정양권 그림 (2021).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 빛이 되어라. 서울:라이트교육.

인성교육 모형(허계형, 2020, p. 28.)에 기초한 9편의 성경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2 과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해를 핵심역량으로, 3-6 과는 ‘기독교 정서발달’로 기독교적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을 핵심역량, 7-9 과는 ‘기독교 사회성 발달’과 ‘기독교 미래사회 리더십’으로 이웃사랑의 실천, 친사회성, 의사소통, 예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을 핵심역량으로 한다.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유아가 각 과가 시작되는 첫 주에 성경이야기를 듣고 3주에 걸쳐 활동을 통해 성경이야기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28주로 구성하였으며, 보다 많은 활동 자료는 서적을 참고할 수 있다.²⁾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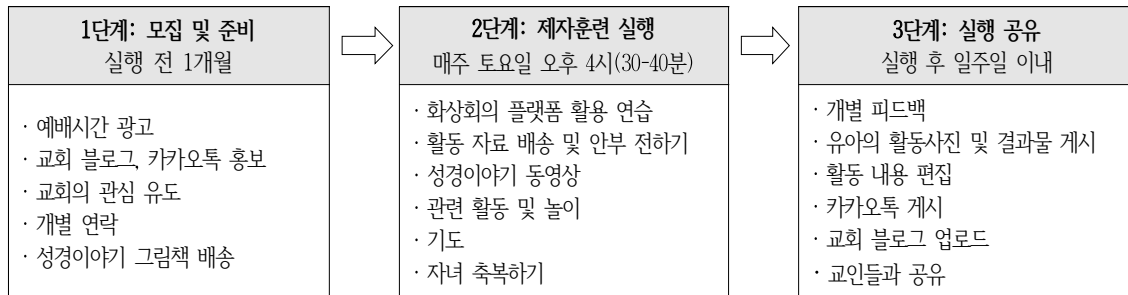
요소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핵심역량	성경이야기	활동
하나님과 관계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해	1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 1:26-31)	오리엔테이션, 1과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꾸미기(1-3일)
		2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 8:23-27; 막 4:35-41; 요 14:15-18,26)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꾸미기(4-7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기
기독교 정서발달	기독교적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	3과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감정이야기 (눅 5:4-11; 마14:22-33; 눅 22:54-62; 요 21:15-17)	스크래치 종이에 파도치는 바다 그리기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바다 그리기
			이불 뱃놀이
		4과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눅 15:1-7; 마 18:12-14)	베드로의 감정 책 만들기
			베드로의 물고기 낚시놀이
			식빵 얼굴표정 꾸미기
		5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야기 (삼상 17:57-18:5)	푸른 풀밭 꾸미기
			양 모양 책갈피 만들기
			팝콘으로 양 만들기
		6과 거북이 터커의 사랑 연습 (엡 4:26-27)	다윗과 골리앗 머리띠 만들기, 역할놀이
			기도 손 만들기
			감정온도계 만들기
기독교 사회성 발달, 미래사회 리더십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 친사회성, 의사소통, 예수님의 성품기반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	7과 친구가 된 요나단과 다윗 (삼상 17:57-18:5)	거북이 터커의 감정조절 카드 만들기
			거북이 장갑 인형놀이
			감정을 조절하는 나만의 공간 만들기
		8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눅 19:1-10)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만들기
			짜꿍 목걸이 만들기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
		9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요 13:34-35; 마28:18-20)	삭개오의 얼굴 표정 만들기
			예수님과 삭개오의 식탁 꾸미기
			나랑 같이 놀자 역할놀이
			슈퍼친구 막대인형 놀이
			슈퍼친구 팔찌 만들기
			슈퍼친구 망토 만들기, 수료식

<표 1>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

2) 허계형 외 (2021). 우리가족 신앙습관을 만드는 67일 프로젝트 빛을 담은 부모 빛이 되는 아이. 서울:라이트교육.

3. 연구절차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유아제자 훈련은 2021년 3월 20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28주 동안 실시되었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제자 훈련의 실행절차는 모집 및 준비, 제자훈련 실행, 실행내용 공유의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모집 및 준비 단계에서는 광고를 통한 홍보와 성경이야기 그림책 보내기, 실행의 단계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연습과 제자 훈련 실행, 실행 공유 단계는 활동자료의 편집과 SNS를 통한 공유로 이루어진다. 실행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제자 훈련의 실행절차

유아의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는 접속부터 마무리까지 유아를 지원하는 역할로 참여한다. 부모는 유아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고, 함께 경청하고 반응하며 유아와 상호작용을 한다. 가상공간에 있는 진행자를 대신하여 부모는 유아의 직접적인 놀이의 대상자가 되고 신체적 접촉과 모델링, 언어적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진행자는 제자훈련 중 부모에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호작용 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라고 제안하여 부모로 하여금 유아와 함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며 유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자훈련은 기도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된다. 부모와 유아가 함께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를 마친 후 유아가 온라인 공간에 함께 있는 친구에게 하트, 엄지척 등을 날리며,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으로 부모는 ‘OO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OO아 사랑해!’,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거나 안아 준다.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놀이와 활동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신앙성장과 부모의 신앙적 양육기능을 회복하도록 온라인 지원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활용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Creswell(2006)과 김영천(2012)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 심층면담, SNS를 통해 수집하였다.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와 SNS를 통한 소통 내용 중 부모님의 질문이나 반응 등은 별도로 기록을 해 두었다. 심층면담은 유아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종료 후 프로그램에 80% 이상 참여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목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였다. A4용지 40장의 분량으로 전사한 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의미를 찾아 주제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

(1) 아이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유아 제자훈련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이유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과 놀이를 들었다.

우리 믿음이가 이 시간을 기다려요. 너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이 시간이 되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놀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가 안 온 날은 ○○는 어디 갔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믿음이는 제자훈련에서 화면으로 친구들을 보면서 만들기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9. 27. 믿음이 어머니 심층면담)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제가 읽어 주려고 했는데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들기 자료나 놀잇감 주 시잖아요. 성경동화 듣고, 활동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아이가 '이거 물감그림 그린 거잖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알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도 만든 거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거나 만들기 같은 게 있으니까 재미있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근데 오늘은 믿음이랑 친구들이 보이지 않네요. 소망이 혼자인가요? 아휴 소망이 아쉽겠네! 사랑이하고 아이들 귀엽다고 좋아하는데..... (중략) 동생이 있어도 여기서 아이들 만나는 것 좋아해요. 오늘을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하자. (유아가 '○○하고 ○○이는 오늘 왜 안와요?' 라고 물어 진행자가 어머니께 전달받은 결석이유에 대해 설명해 줌) (소망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우리 사랑이는 아직 어려서 공부하는 것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화면으로 언니들을 만나는 것 보는 것을 좋아해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2)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 새 일상이 된 신앙 교육

어머니는 유아의 기도습관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제자훈련 시간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인지하였다. 유아가 과거에는 기도를 장난치듯이 했다면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알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기도를 하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된 점을 예로 들었다.

가장 좋은 점은 '기도'예요. 옛날에는 장난으로 '아멘'했다면 기도나 예배흐름을 알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 이런 말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 27. 믿음이 어머니 심층면담)

별거는 아닌데.. 자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중략) 기도도 옛날에는 (아이가) 딱 짓을 했는데, 저도 기도가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아이가 시간을 아는 거예요. 토요일 4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되면 TV를 끄고 제자훈련에 참여하더라고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2.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

(1) 유아부 예배의 대안이지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유아 제자훈련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부담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참여 초기에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과 유아에게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제자훈련이 가능할까 반신반의해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에게 죄책감이 덜해졌어요. 제가 5-6살 때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나 남편도 직장에 가야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가야해서 교회도 못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듣는 거랑 아주 어릴 때 듣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줌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잘 안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회사에서 회의를 해 보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전달이 잘 안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잠깐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9. 27. 믿음의 어머니 심층면담)

처음에는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벌써 2년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불안해 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신청했어요. 그래도 예배가 될까하고 생각했어요. (10. 2. 소망의 어머니 심층면담)

사실 아이가 태블릿 PC도 많이 접하고 TV도 많이 노출되어서 염려했었는데... 학습지를 태블릿으로 하는 것은 아이가 싫어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잠깐 있다가 돌아다니고... 우리 사랑이만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지금은 앉아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줌이 (접속도) 잘 안 되고.....이거 못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했거든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2)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한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는 매번 프로그램을 마칠 때 서로를 축복해 주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시간이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가 아이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경험하였다.

제가 아이를 못하게 하거나 떼를 쓰면 혼내는 경우라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안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아이에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아이를 안아주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니까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고 도망가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어제도 사랑이하고 싸웠거든요. 아이가 한 번 떼쓰기 시작하면 저도 같이 화를 내게 되고.... 아이 양육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는데 사모님과 대화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소리 지르는 것이 덜해

졌어요. 제가 변하니까 아이가 확실히 밝아졌어요. 사촌도 사랑이가 더 밝아지고 표현하는 것도 더 풍부해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우리 ○○이는 축복하는 시간에 제 손을 끌어다가 머리를 쓰다듬어요. 원래도 우리 아이가 엄마 껌딱지였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말하면서 쓰다듬어주고 하트를 날려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저에게 안기는 거예요.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회의 유아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코로나 19라는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사례를 소개하고 어머니의 참여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과 시대적 요구에 근거한다. 유아교육의 시대적 흐름은 유아가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또한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인성,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장명림, 2017).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도록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허계형, 2020. p.105). 성경이야기는 유아의 신앙과 사회정서인성 발달을 촉진하는 유용한 자료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송영란·오영희, 2006; 이지영·이유나, 2016; 권정해·신인숙, 2011; 박수진·김미경, 2013; 김성원·신현정, 2018)에 근거하여 기독교 유아사회정서인성의 핵심요소를 담고 있는 성경이야기 9편으로 구성된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유아가 28주 동안 성경이야기와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내면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유아 제자훈련 실행 사례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예배의 참석률이 낮은 유아와 유아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만하다. 일반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원격수업의 효과를 위해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이미정·신지연, 2020). 더욱이 교회는 가정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육적 기능(신 6:4-9)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적절한 신앙교육 관련 활동을 제공해 주고, 부모의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임상훈, 2020).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유아 제자훈련 실행과정을 통해 발견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신앙교육회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부모가 실행 가능하도록 실시간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교회는 가정이 유아를 위한 신앙교육의 장(context)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마은희 외, 2020; 임상훈, 2020; 함영주, 2021). 단순한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와 활동 자료만을 제공할 경우 부모의 실행력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 부모의 지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회와 가정의 상호작용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임상훈, 202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화상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유아 제자훈련을 실행한 점이다. 특히 부모는 제자훈련의 전 과정에 유아와 함께 참여하며 활동과 놀이를 하였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자녀를 격려하기, 축복하기 등 바람직한 기독교적 상호작용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유아기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유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

둘째,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은 유아를 둔 가정에 대한 비대면 심방과 상담을 병행한 목회적 기능을 일부 감당하였다. 화상회의 플랫폼은 사적인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끌어 들인다는 특징이 있다. 제자훈련의 시작과 끝에 근황과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가정의 이야기, 자녀양육과 관련한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자연스럽게 짧고 간단한 상담으로 이어졌으며, 유아와 가정의 필요를 알게 되고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었다. 이는 제자훈련에 참여한 부모가 고민을 나누고 마음이 편해졌으며, 자신의 변화가 아이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고백한 부모의 반응에서 확인된다.

셋째, 소규모의 교회나 유아부가 소수인 교회, 유아부의 분반공부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화상회의 플랫폼은 일정시간은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진다면 사용법도 금방 익힐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화상회의 방식의 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교역자가 없고 별도의 예배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여력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도 여건을 타하며 시간을 보내버릴 수는 없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 자세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틀린 길이 아니라면 해답을 찾기 위해 어디라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권순웅 외, 2020, p.152).

본 연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유아 제자훈련의 참여 경험과 의미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히며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경기도 소재의 한 소형교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자와 제자훈련의 실행자가 동일인으로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에는 다양한 교회와 배경에서 유아의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의 함양과 부모의 기독교적 양육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국 외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 전략과 과제”.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97-310.
-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 권순웅 외 (2020).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 경기 부천: 들음과 봄
- 권정해·신인숙(2011). “성경동화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학논집』, 37, 111-130.
- 김성원·신현정 (2018). “성경 이야기를 통한 가정 연계 유아 성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58, 165-198.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마은희 외 (2020). “코로나 시대 웹(web)기반 유아-부모 세대통합 예배 전략과 실제: 기독교 유아사회정서

- 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6, 197-220.
- 박수진·김미경(2013). “성경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8, 165-188.
- 송영란·오영희(2006). “성경동화 활동이 유아의 신앙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6(6), 175-199.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탐구”.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자료집』, pp.22-24.
- 오영희·정미(2009). “성경 이야기 극화활동이 유아의 신앙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문논총』, 26, 123-149
- 이광수·함영주 (2018). “세대통합예배의 활성화를 위한 가정예배의 회복”. 『신학과 선교』, 53, 205-242.
- 이동후 (2021). “코로나 19시대의 디지털 교실에 관한 미디어 생태학적 탐구 : ‘줌’이 매개한 비대면 교실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2), 98-130.
- 이미정·신지연 (2020). “유치원 원격수업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실험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5), 277-302.
- 이지영·이유나(2016). “성경동화를 활용한 오감성경놀이 활동이 유아의 기독교 개념과 종교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1), 343-366.
- 임상훈 (2020).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동영상 콘텐츠 및 SNS를 활용한 영유아 상호작용 활동 연구: 유튜브와 카카오톡채널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7, 299-333.
- 장명림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1-79.
- 정희영 (2010). 『기독교 유아교육론』. 경기 파주: 교육과학사.
- 정희영 외 (2014). “기독교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 추출”. 『기독교교육논총』, 26, 195-217.
- 정희영·진명선. (201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신앙교육교재 활용이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정보』, 55, 183-212.
- 정희정·김남임. (2013). “기독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4), 113-138.
- 조혜정 (2020).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 학부모의 신앙성숙이 사회 회피 및 불안(SAD)에 미치는 영향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 『기독교교육정보』, 65, 57-85.
- 함영주 (2021). “코로나 19 이후 통계로 보는 교회교육의 미래”.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6-48.
- 허계형 (2020).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허계형 외 글, 정양권 그림 (2021).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 빛이 되어라』. 서울:라이트교육.
- 허계형 외 (2021). 『우리가족 신앙습관을 만드는 67일 프로젝트 빛을 담은 부모 빛이 되는 아이』. 서울:라이트교육.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조홍식 외 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Ebner, N. and Press, S. (2020). Pandemic pedagogy II: Conducting Simulations and Role Plays in Online, Video-Based, Synchronous Courses.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303 (검색일 2021.10.5).

- Rushdoony, M. R.(2001). *The philosophy of the Christian Curriculum*. 정선희 역(2007).『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 Takeuchi, L. M.(2011). Families Matter: Designing Media for a digital age. New York, NY: The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https://joanganzcooneycenter.org/publication/families-matter-designing-media-for-a-digital-age>(검색일 2021.5.20.)
-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89>.(검색일 2021.9.8.) 기독교신문 2020.1 2.1.일자. “위기의 다음세대 교육, 부모교육 병행하며 적극 투자로 극복하라”.
-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9> (검색일 2021.9.8.). 카스펠 투데이. 2020.5.28.일자.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격차, 작은 교회 교회학교 위협”.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582&code=23111111&sid1=hon/feed>(검색일 2021.10.1.). 국민일보 2021.2.23일자. “교회 10곳 중 2곳 주일학교 운영 못해”.
-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4>.(검색일 2021.9.8.) 뉴스앤 조이 2020.4.21.일자. “코로나 19,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①아이들 교회 규모 따라 대응 천지 차이…아예 손 놓은 교회도”.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탐색	발표자	마은희
		논찬자 (소속)	이혜정 (백석문화대학교)

코로나 19 기간에 맞추어 실시간 화상회의를 기반으로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탐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유아기는 신앙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영적 발달과 전인 발달을 이루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교회 참석에 반대하는 경우가 두드러져 주일 대면예배의 참여율이 낮으며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연령인 30-40대가 42.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교회교육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와 교회학교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어린 유아들은 온라인을 통한 예배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제자훈련을 진행한 본 연구는 앞선 이유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있어 첫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 둘째, 기독교 정서발달, 셋째, 기독교 사회성 발달, 기독교 미래사회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여 유아로 하여금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 기독교 교육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독교 쪽 측면에 있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함께 가야 한다는 측면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 온라인으로 유아 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모가 지원자의 역할을 경험하고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촉진자가 됨을 통해 유아만의 제자 훈련이 아닌 부모의 신앙적 양육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결과로 부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있어 첫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를 통해 유아가 제자훈련을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는 과정을 제시한 것, 둘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에 있어 어머니의 의구심에 대한 부분과 제자 훈련을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제자훈련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6명의 참가자 중 3명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측면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유아의 변화와 부모의 변화를 수량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연구논의에 있어 첫째, 가정의 신앙교육회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부모가 실행 가능하도록 실시간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은 유아를 둔 가정에 대한 비대면 심방과 상담을 병행한 목회적 기능을 일부 감당하였다, 셋째, 소규모의 교회나 유아부가 소수인 교회, 유아부의 분반공부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작성한 부분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으나 논의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다른 학자들의 의견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첫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와 둘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로 나누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논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기간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을 지속하고 어머니의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점은 연구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제자훈련이 성경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유아의 사회정서적 측면도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임을 제시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향후 많은 유아가 참여함으로써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와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객관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